

일 주 문



자녀를 위한 108기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은 7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덕사 대웅전에서 108일간 '자녀를 위한 108기도'를 진행한다. (041)330-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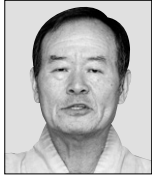
통도사 보행로 명칭 공모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7월 30일까지 새로 개통하는 통도사 보행로 명칭을 공모한다. (055)382-7182



UN군 전몰용사 합동위령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회장 무원 스님(전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은 6월 24일 부산 UN기념공원 추모관 일대에서 전몰용사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한국장엄학회 차기 회장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월 14일 한국장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6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1년이다.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강의
공세화 꿈바위불교교육원 원장은 6월 30일 오전 11시 대전 중구청 맞은편 교육원에서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법등 스님, 국민통합위 민간위원 위촉



前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구미 도리사 회주)(사진)이 6월 17일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구성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정책과 관련 사업의 자문을 맡게 된다.

불교포럼 임영록 씨, KB금융 회장 내정



조계종 불교지도자네트워크 불교포럼 회원인 임영록 KB금융 사장(사진)이 최근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됐다. 임영록 회장 내정자는 독실한 불자로 평소 임제 스님의 '수처자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사람들의 삶이 불후의 명작이 되길”

영화로 불법 전하는 대해 스님

영화 초보의 첫 데뷔작이 세계영화제 3관왕에 올랐다. 영화를 배운 적도, 연습삼아 만들어 본 적도 없다. 흑자는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자이며 영화인들의 멘토로 꼽히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와 비슷하다고들 한다. 어느 날 영화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거물 신인. 놀랍게도 비구니 스님이다.



오스트리아 영화제 은상 수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77편 제작
'영화는 포교의 좋은 방법'

경산에 위치한 대해사 국제선원장 대해 스님은 6월 20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41회 페스티벌 오브 네이션(Festival of Nation)'에서 '소크라테스의 유언'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영화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불법 영화의 회소성과 깊이를 알아봐 준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한 대해 스님은 "세계 여러 곳에서 감독전 초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교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스님은 2007년 참영화연구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77편의 작품을 제작했다. 세계 영화제에서 받은 상만 20여 개. 게다가 지난 5월 30일에는 러시아의 '백야(White Nights) 국제영화제'에서 감독 초대전을 가졌다. 스님의 대표작 '색즉시공 공즉시색'

을 비롯해 4편이 상영됐다. "20년 전, 불법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는 부처의 말씀대로 이미지를 통해 사교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포교 방법을 고민하다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촬영 편집만 기술자의 도움을 조금 얻을 뿐, 손수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카메라를 듭니다."

제작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영화를 찍을 수 있었을까? 스님은 "이미 본질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쓰면 될 뿐이지"라고 답했다. 우문 현답이다.

스님의 영화를 본 외국 관객은 모국어로 더빙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했다. 러시아 학생들이 위해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영화를 활용하고 싶다고도 했다.

진리를 담은 영화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스님. 세상이 그 뜻에 감응해 스님에게 이런저런 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스님은 수상은 단지 포교를 위한 좋은 계기일 뿐, 불법의 방편 그 이상은 아님을 강조했다.

"언제나 기본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화엄경80권을 비롯 여러 경전을 한글로 역경하기도 했고, '생명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근원적 진리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니다. 스님은 조만간 불법의 진리를 담은 스마트폰 용 앱과 컴퓨터 게임도 만들 계획이다. 불국도를 만들기 위한 스님의 전방위적 발걸음이 자못 활기차다.

배현진 수습기자 linus@hyunbul.com

제5회 경남 고성 보리수 체험 축제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 고성 서방사(주지 등정)는 6월 16일 '제5회 고성 보리수 체험 축제 및 산사 음악회'를 봉행했다. 보리수나무 열매를 직접 불자들이 수확하며 부처님의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토선종 임원 및 종도, 고성 육전사 주지 진성 스님, 보광사 도흥 스님, 이학열 군수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서방사 주지 등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평의 대지에 보리수 나무를 심어 수익금으로 관내 불우이웃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매년 이 행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55)673-3719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약사사, 효어르신 큰잔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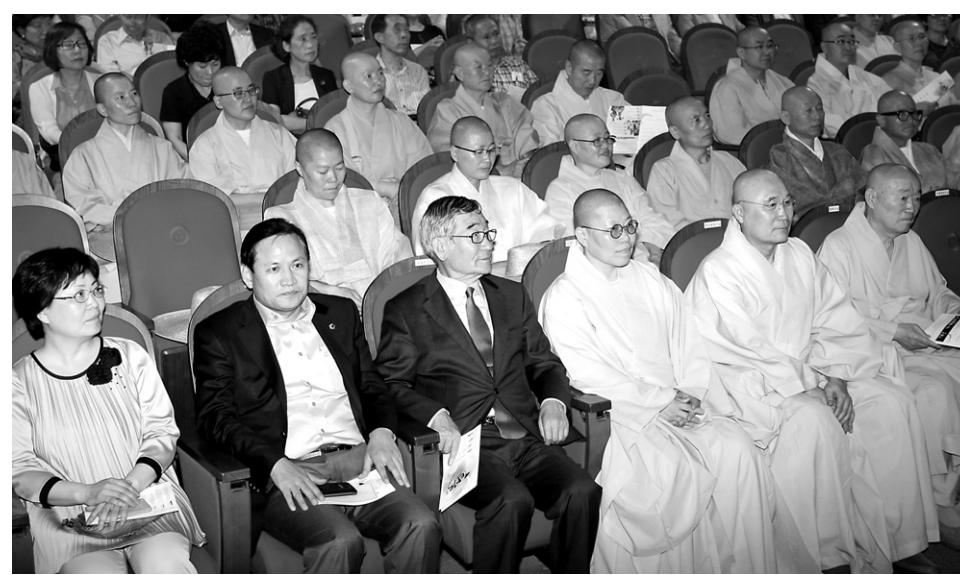
(재)한국불교여래종 약사사(주지 해안)는 6월 17일 남한산성 여래구도봉사회 무료급식소 광장에서 '약사사 중흥 48주년 및 여래구도봉사회 2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이어 효어르신모시기 큰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총무원장 명안 스님, 이재명 성남 시장, 티사위 제라르레 스리랑카 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무료 급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며 성심사 은행2동에 쌀 1톤을 기증했다. 노덕현 기자

영암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제



조계종 前총무원장 영암당 임성 대종사 열반 26주기 추모제가 6월 15일 서울 불은사 법당에서 봉행됐다. 추모제에는 봉선사 회주이며 조계종 원로위원인 밀운 스님과 前중앙총회회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임성 대종사 문도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02)3218-4942 노덕현 기자



타악 한마당 '템스'

6월 21일 VIP시사회

힐링 난버널 타악 공연 '템스' VIP초청공연이 6월 21일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있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BTN 이사장 성우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최경선·김태희 서울시의원 등 사부대중은 감춰놓아가지 않았다. 8월 11일까지 공연. 문의 (070)8827-0108 박재원 기자

출·재가자 축구로 한마음

해인사·원주불교축구단 6월 15일 친선축구 가저

6월 15일 해인사 승가대학 스님들이 오랜만에 체력을 단련했다. 불자들로 구성된 원주불교축구단과 축구시합을 벌인 것이다.

학인 스님 60여 명 등 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체육단련장에서 치러진 시합. 역시 축구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해설이다. 4명의 '입담 좋은' 스님들이 탁자에 앉아 경기를 중계하자 관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비록 경기는 스님들의 패로 돌아갔지만 보여준 배려는 '금메달' 급이었다. 상대선수가 넘어지면 달려와 일으켜주며 경기를 이끌어나갔다. 스님들은



해인사 스님들이 원주불교축구단과 시합을 앞두고 화이팅하고 있다.

직접 물과 수박을 준비하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스님들은 "흥미진진했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를 만들자"며 만족해했다. 원주불교축구단장 이기정씨도 "종교화합차원에서 타 종교인들과도 축구경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 스님들의 체력이 뒤지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배현진 수습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요람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해 제 43회(22년 전통)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 선무도 명상 테라피 학교폭력 예방 특별프로그램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캠프

연 제 : 2013년 7월 21일 ~ 8월 24일

모집인원 : 매주 일요일 10시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매주 100명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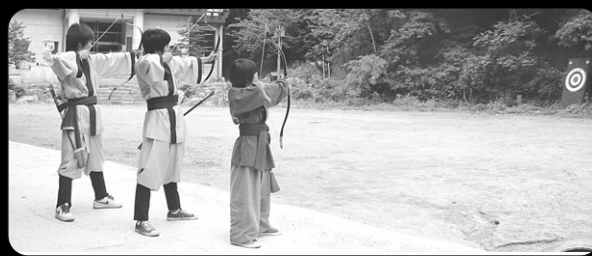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모자, 개인컵 등 (현금, 휴대폰, 게임기 휴대금지)

접수 및 문의 : 054)775-1689 / 054)77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환불규정 : 입산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5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교육프로그램

- 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교양수업 : 문화관광 (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연인원 4만명(외국인 참가 7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 사관학교